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아동의 한국어 발달 : 복문발달을 중심으로

Complex Sentence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Bilingual Children

이귀옥(Kwee-Ok Lee)¹⁾

이혜련(Hae-Ryoun Lee)²⁾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complex sentences in the early utterances of Korean-Chinese children. The subjects were 47 (20 2-year-old, 15 3-year-old, and 12 4-year-old) Korean-Chinese children living in China. Each child's spontaneous natural speech during interaction with his/her caregiver was videotaped for about 30 minutes and analyzed for Korean complex sentences using Kim's (2000) categories and 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2.0 (2000). Results showed that older children were higher in Mean Length of Utterance and in number and frequency of word types than younger childre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was delayed compared with monolingual children but the developmental sequence between bilingual and monolingual children was similar.

Key Words : 복문발달(complex sentence development), 이중 언어(bilingual), 자발발화(spontaneous utterance).

I. 서 론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중 언어 경험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중 언어나 제2, 제3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아기 초기부터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이나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 등 보다 더 자연적인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되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언어 민감기라 할 수 있는 아동기에 집중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일 것

¹⁾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교수

²⁾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ae-Ryoun Lee, Department of Human Ecology, Kyung Sung University, Busan, Korea
Email : 980913@hanmail.net

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초기에는 이중 언어 경험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보고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중 언어 아동들이 단일 언어 아동들에 비해 언어발달 시기가 약간 늦어지는 경향은 있지만(이귀옥·전효정·박혜원, 2003; 황혜신·황혜정, 2000; Gathercole, in press), 언어발달의 과정에는 차이가 없고(이귀옥·이혜련, 2004; 이귀옥·이혜련, 2005; Gathercole, in press) 5, 6세 이후가 되면 단일 언어 아동들의 언어수준과 유사해진다는 연구들(이귀옥 등, 2003; 이귀옥·이혜련, 2004)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동의 이중 언어 경험이 두 가지 언어사용의 이점뿐만 아니라 아동의 상위언어능력을 비롯한 상위인지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귀옥·이혜련, 2005; 이혜련·이귀옥, 2006; Bialystok, 1999; Bialystok & Codd, 1997)로 이중 언어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중 언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흔히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영어권 이중 언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언어적 독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어 이중 언어 아동들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조사를 사용하고, 존칭을 사용하는 등 문법적으로 더 복잡하므로 한국어 이중 언어 아동들은 문법구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이중 언어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이중 언어 환경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언어발달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유아기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기외국어교육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언어발달이 진행되지만 초기 언어발달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심하다. 이러한 초기 언어발달과정의 개인차로 인해 연령은 적절한 언어발달지표로 사용되기 어려우므로 초기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s=MLU)가 주로 사용된다(이영자, 1997; 조명한, 1982; Brown, 1973; Retherford, 1987). 평균발화길이는 아동의 각 문장 속에 포함된 낱말이나 형태소의 수를 평균낸 수치로서 아동이 사용하는 발화 내에 문법적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Brown(1973)은 그 단계를 다섯 개로 나누어 I단계는 1.75까지, II단계는 2.25, III단계는 2.75, IV단계는 3.50, V단계는 4.00까지로 설정하였다. Brown의 다섯 단계는 그 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장되고 체계화되었는데, Miller와 Chapman (1981)은 영어권 아동 1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달단계를 V단계로 나누고 I단계와 IV, V단계를 초기와 후기로 각각 나누어, 초기 I단계(MLU=1.00~1.49)는 16-26개월, 후기 I단계(MLU=1.50~1.99)는 18-31개월, II단계(MLU=2.00~2.49)는 21-35개월, III단계(MLU=2.50~2.99)는 24-41개월, 초기 IV단계(MLU=3.00~3.49)는 28-45개월, 후기 IV단계/초기 V단계(MLU=3.50~3.99)는 31-50개월, 후기 V단계(MLU=4.00~4.49)는 37-52개월 등으로 설정하였다. 대체로 MLU가 3.0 이하인 아동들의 경우에는 연령보다는 MLU가 아동의 생산적 언어 수준을 더 잘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므로 (Klee & Fitzgerald, 1985; Rondal, Ghiotto, Bredart, & Bachelet, 1987) 아동들의 연령에 따라 MLU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아동들의 초기 언어발달 정

〈표 1〉 복문 구조의 정의 및 예

유형	정 의	예
나열	같은 의미유형들이 나열되어 있거나, ‘-(와)과’와 같은 연결어미로 나열되어 주부-술부의 관계가 2개 이상 나타난 경우	“나는 사과, 포도 먹었어”
	접속사나 연결어미에 의해 한 발화가 두 개 이상의 절로 구성된 것으로 두 절이 의미적으로 대등한 경우	
연결	① 때연결 : 한 구나 절에서 나타난 사건이 다른 구나 절에서 나타난 사건과 시간적 선후관계(‘-고’, ‘-고나 서’, ‘-한 후에’)나 동시성(‘-(하)다가’, ‘-하면서’)을 나타내는 의미관계	“미끄럼 타고나서 그네타요”
	② 조건연결 : 한 구나 절에서 나타난 사건이 다른 구나 절에서 나타난 사건과 상반되거나(‘-나’, ‘-아도’, ‘-지만’),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거나(‘-(하)면’, ‘-거든’, ‘-더라도’), 첨가의 관계를 나타내거나(‘-뿐 아니라’, ‘-르 수록’), 혹은 배경을 나타내는 (‘-는데’, ‘-느는데’) 의미관계	“텔레비 보면서 밥 먹었어”
	③ 이유연결 :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의도(‘-려고’, ‘-고자’, ‘-러’)나, 이유 또는 원인(‘-으니까’, ‘-으므로’, ‘-아서’)이 되는 의미관계이다.	“친구가 때려서 발로 찼어”
	④ 양보연결 :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대한 양보(‘-아도’, ‘-할지라도’)나 무관함을 나타내는(‘-거나’, ‘-든지’) 의미관계	“네가 따라오던지 말든지 난 같거야”
내포	한 발화안에서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구나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것. 경험자내포, 공존자내포, 수여자내포, 대상내포 등이 빈번하게 사용	“아프던 아가가 이제 나왔대”

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중 언어 아동들이 연령에 따라 언어발달 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MLU, 어휘유형수, 어휘빈도수 등 일반적인 언어발달지표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18개월경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두 단어 발화를 시작하는데, 이러한 두 단어 조합의 출현은 아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것이다(이승복, 1994). 그리고 2-4세 정도가 되면 아동의 발화에는 불완전하지만 복문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복문은 주부와 술부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어와 용언(행위 또는 서술)의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단문, 두 번 이상

맺어지면 복문이다(남기심 · 고영근, 1996). 복문 중 가장 초보적인 것은 술부의 나열이다. 예를 들어, “아줌마가 빵이랑, 우유 사줬어”라는 문장은 “아줌마가 빵 사줬어”와 “아줌마가 우유 사줬어”를 한 발화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복문사용은 단문의 문장내에 다양한 의미관계를 사용한 이후에 나타나므로 좀더 발달된 형태로 볼 수 있다(김영태, 2002). 그러므로 복문발달은 약 3세경이상의 유아들의 언어발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중 언어 아동들은 초기 언어발달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이귀옥 등, 2003), 약 3세경에 복문이 나타나는 한국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이중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복문발달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이중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동의 제1

언어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아동의 복문 발화는 먼저 구나 절간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고, 각 문장 속에 있는 구나 절의 의미관계를 다시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태(2002), 남기심과 고영근(1996)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복문을 나열(juxtaposition), 연결(conjoining), 내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한국 2-3세 아동들의 복문 의미관계를 분석한 김영태(2002)의 결과, 아동들이 나열이나 내포보다 연결 의미관계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복문 의미관계의 빈번한 하위유형을 살펴보면 나열 의미관계에서는 실체와 대상, 공존자 나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연결 관계에서는 때 연결이나 조건 연결을 다른 연결 관계보다 좀더 많이 사용하며, 내포관계에서는 체언수식과 용언수식 등의 수식내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하는 이중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복문발달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이중 언어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 단일 언어 아동들의 연구(김영태, 2002)와 비교함으로써 이중 언어 아동들의 언어발달이 단일 언어 아동들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한국어 발달수준을 알아보고, 복문구조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이중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언어발달과정은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복문발달수준은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복문구조 발달 과정은 한국어 단일 언어 아동들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연결의 조선족 2세 20명(평균연령 : 27.75개월, 범위 : 24-35개월), 3세 15명(평균연령 : 40.26개월, 범위 : 36-44개월), 4세 12명(평균연령 : 52.91개월, 범위 : 48-58개월)등 총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결의 조선족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 중 부모가 동의한 아동들에 한해서 2003년 11월부터 1회 약 30분동안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중 자발발화를 녹화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아동들의 부모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 연령은 평균 35.1세, 어머니연령 평균 32.3세였고, 아버지학력은 대졸이상이 62.5%, 고졸이상이 33.3%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73.9%, 고졸이 26.1%로 대졸이상이 주를 이루었다. 아동의 부모들은 모두 조선족으로서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이웃이나 친구, 어린이집, 가정에서 보는 TV나 신문 등을 통해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이중 언어 환경에 속해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 모두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므로 한국어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는 이중 언어 아동들이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유치원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일한 장난감 세팅 하에서 약 30분 동안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

용과정에서의 자발발화를 비디오로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이를 위해 관찰 장소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난감(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아기인형, 우유병, 자동차, 비행기, 동물, 호랑이인형, 소꿉놀이)을 준비하였다. 아동과 어머니가 방문하면 인사를 나눈 다음, 어머니에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자연스러운 아동의 표현 언어를 관찰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단답형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아동의 발화를 유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녹화하였고 녹화 후 바로 전사하였다. 전사한 아동의 자발발화 중 상호작용이 활발한 발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발화가 시작되는 앞부분 약 5분은 제외한 후 아동의 발화 중 약 150발화정도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를 한국어발화분석(KCL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과 어머니의 평균형태소길이(MLU-형태소), 어휘유형, 어휘빈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복문발달을 살펴보고자 한국 아동의 자발발화에서 나타난 복문을 김영태(2002)의 분류방법에 따라 나열, 연결, 내포 등으로 분석하고 각 복문의 하위유형별로 빈도를 산출하였다.

연령에 따른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들의 복문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복문유형의 사용아동율과 사용율을 산출하였다. 사용 아동율은 각 연령별로 총 아동 중 각 복문유형을 사용한 아동수를 의미하고, 사용율은 사용한 아동들의 전체 발화 중 복문 발화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일 언어 아동들인 한국아동들의 복문발달과 비교하기 위하여 이를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 자료인 김영태(2002)와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먼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평균형태소 길이, 어휘유형수, 어휘빈도수 등 언어발달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MLU, 어휘유형수, 어휘빈도수의 차이

	연령	평균	표준 편차	F 값
아동 MLU	2세	1.79	(45)	52.34**
	3세	3.59	(64)	
	4세	4.97	(1.46)	
어휘 유형수	2세	95.10	(34.03)	12.12**
	3세	114.00	(18.85)	
	4세	144.00	(22.48)	
어휘 빈도수	2세	240.15	(87.91)	8.00*
	3세	305.20	(77.59)	
	4세	354.25	(68.17)	

* $p < .05$ ** $p < .001$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MLU, 어휘유형수, 어휘빈도수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연령에 따라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MLU에서 2세일 때는 1.79로 Brown(1973)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I단계(1.75까지)를 겨우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3세에서는 평균 3.59로 V단계(3.51-4.00)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나 2세와 3세 사이에 언어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iller와 Chapman(1981)의 범주에 따르면 2세 아동의 경우 MLU 1.79는 발달이 약간 늦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4세 아동의 경우 MLU가 3.59, 4.97로서 단일 언어 아동의 발달단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에는 이중 언어 아동들의 언어발달이 약간 지연될 수 있으나 4세 이상이면 단일 언어 아동들의 수준과 유사해짐

〈표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복문 구조의 발달

복문 유형	연령	사용아동율 (사용아동수/전체아동수)	사용율 (각유형별 사용빈도/전체 복문 사용빈도)
나열	2세	0	0
	3세	0	0
	4세	0	0
내포	2세	0	0
	3세	15/15(100%)	14.89
	4세	11/12(91.7%)	14.70
연결	2세	0	0
	3세	15/15(100%)	80.85
	4세	11/12(91.7%)	83.30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연령에 따라 한국어 복문 구조 발달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세 아동들의 경우 복문구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3세와 4세에서만 복문구조가 나타났다. 3세와 4세 아동들의 경우에도 나열 구조는 나타나지 않았고, 내포와 연결의 복문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문구조의 발달과정에서 3세와 4세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내포($t=-1.92, p<.05$), 연결($t=-.84, p<.05$) 모두 연령

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언어 아동들의 복문 구조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복문구조의 하위유형별로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결구조의 하위유형 발달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3세와 4세 아동 모두 동시연결, 시간연결, 조건연결, 이유연결 등 연결 구조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3세 아동의 경우 시간연결(60.0%)을 가장 많은 아동들이 사용하였고, 그

〈표 4〉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연결 구조의 발달

하위유형	연령	사용아동율	사용율	예(이름, 연령)
동시연결	3세	4/15(26.66%)	15.78	이것도 씻고 저것도 씻자(wy; 4세)
	4세	7/12(58.3%)	21.81	
시간연결	3세	9/15(60.0%)	42.10	여기 사람이 앉고 그담에 모는거다(wj; 4세)
	4세	7/12(58.3%)	18.18	
조건연결	3세	7/15(46.7%)	30.30	놀이감이 아니면 사람이 먹는걸까?(hj; 3세)
	4세	8/12(66.7%)	51.02	
이유연결	3세	5/15(33.3%)	18.18	나쁜게 되서 힘이 세지(nh; 3세)
	4세	3/12(25.0%)	14.28	

〈표 5〉 아동의 연령에 따른 내포 구조의 발달

하위유형	연령	사용아동율	사용율	예(이름, 연령)
체언수식내포	3세	5/15(33.3%)	55.55	이건 이걸 담는 그릇이다(ar; 3세)
	4세	4/12(33.3%)	40.00	
대상내포	3세	1/15(6.6%)	22.22	아이 먹을꺼 가져 왔다(jb; 4세)
	4세	3/15(20.0%)	30.00	
용언수식내포	3세	1/15(6.6%)	22.22	동생은 자동차에 앉아서 간다(uj; 3세)
	4세	3/12(25%)	30.00	

다음으로 46.7%의 아동들이 조건연결을 사용하였고, 33.3%의 아동들이 이유연결을 사용하였으며 동시연결은 20.0%의 아동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구조를 사용한 4세 아동들의 발화 중에서도 시간연결(42.1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건연결발화가 30.30%로 나타나 이유연결(18.18%)이나 동시연결(15.78%) 발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조건연결(66.7%)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58.3%의 아동들이 동시연결과 시간연결을 사용하였으며 이유연결은 25.0%의 아동들이 사용하였다. 5세 아동들의 총 연결발화 중에서도 조건연결발화(51.0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동시연결(21.81%), 시간연결(19.1%), 이유연결의 순으로 나타났다. 3세 아동과는 달리 동시연결구조의 사용 아동율이 크게 증가하여 시간연결과 함께 가장 많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연결구조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내포구조의 하위유형 발달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3세와 4세 모두 내포복문의 하위유형 중 체언수식내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세 아동들의 경우에는 체언수식내포는 33.3%의 아동들이 사용하였으나 대상내포와 용언수식내포사용아동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세의 경

우 3세 아동들보다 대상내포와 용언수식내포를 사용하는 아동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포 구조의 사용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아동들과 한국어 단일 언어 아동들(김영태, 2002)의 복문구조 발달과정을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들의 연구(김영태, 2002)는 2-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연령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2세 아동들은 전혀 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단일언어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복문발달이 다소 늦어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3, 4세 아동들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 언어 아동들의 경우 복문구조가 나타나는 초기인 2, 3세경에는 연결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3, 4세의 이중 언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연결 복문구조의 사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단일 언어 아동들과 이중 언어 아동들보다 연결구조 중에서도 시간 연결 구조를 가장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과정이 단일 언어 아동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내포 복문구조에서는 단일 언어 아동들의 경우 체언수식내포, 인용내포, 실체내포 등의 순으로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나 체

〈표 6〉 조선족 이중 언어아동과 단일 언어아동(김영태, 2002)의 복문구조 비교

복문 유형	순위	단일 언어아동(김영태, 2002)		이중 언어 아동	
		유 형	사용빈도	유 형	사용율 (유형별빈도/전체복문빈도)
나열	1	실체나열	26	×	
	2	대상나열	13	×	
	3	공존자나열	9	×	
연결	1	시간연결	23	조건연결	31.30
	2	조건연결	18	동시연결	15.65
	3	동시연결	17	시간연결	22.60
	4	첨가연결	9	이유연결	11.30
내포	1	체언수식내포	23	체언수식내포	7.82
	2	인용내포	5	대상내포	4.34
	3	실체내포	2	용언수식내포	4.34

언수식 외에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았고, 이중 언어 아동들의 경우에는 체언수식 내포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으나 인용내포와 실체내포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단일 언어 아동들에 비해 대상내포와 용언수식내포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열 복문구조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 단일 언어 아동들의 경우 나열 구조를 연결이나 내포와 유사하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 이중 언어 아동들에서는 나열구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중 언어 아동들의 경우 대상이나 실체를 나열하는 대신에 각각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유아기초기부터 조기외국어교육을 학습하는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무리

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붐은 국제화,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모국어 외에 한 가지, 혹은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외국어를 학습하는 아동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시작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아동들의 이중 언어 학습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한국어는 존칭이 복잡하고 어미가 다양하며 조사를 사용하는 등 영어나 중국어 등의 언어와는 구조적으로 분명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데 어순도 이들 언어와는 다르다. 이러한 한국어의 독특성을 고려해볼 때 영어권 이중 언어 아동들의 연구결과를 한국어 이중 언어 아동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기외국어 교육이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로 미루어볼 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들의 이중 언어 학습이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조기외국어 교육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가가 아니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이중 언어를 학습하는 아동들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중 언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자치주 50주년을 맞은 중국내 최대 조선족의 거주지인 연길시는 인구의 약 60%가 조선족이다. 연길의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국어가 제1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선족의 문화가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민족교육 문제등 많은 문제점들로 사회문제를 앓고 있다. 조선족 인구는 갈수록 줄고, 문화의 기반마저 무너져 공동체 해체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길은 최근 한국과 북한의 만남의 장소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선족의 한국진출, 특히 한국인의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그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국외에서도 계승되고 있는 현황과 조선족이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서 사회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길의 조선족 사회는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지역사회나 어린이집,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조선족 아동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게 되는 이중 언어 아동들이므로 이중 언어 학습이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면서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중국 조선족 이중 언어 아동들인 중국 연길의 2-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언어 발달 수준을 살펴보고, 이 아동들의 복문구조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단일 언어 아동인 한국 아동들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평균형태소길이(MLU), 어휘유형수, 어휘빈도수에서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형태소길이 길어지고, 어휘유형수와 어휘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언어 아동들도 단일 언어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MLU 발달 과정(Miller & Chapman, 1981)을 살펴보면, 2세 아동의 경우 MLU 1.79는 발달이 약간 늦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4세 아동의 경우 MLU가 3.59, 4.97로서 단일 언어 아동의 발달단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에는 이중 언어 아동들의 언어발달이 약간 지연될 수 있으나 4세 이상이 되면 단일 언어 아동들의 수준과 유사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어 단일 언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Hoff(2001)의 결과에 따르면 MLU가 3.00 이상인 경우 아동들이 복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 MLU가 평균 1.59인 2세 아동들에서는 복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MLU가 평균 3.59인 3세 아동들부터 복문이 나타나 이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중 언어 아동들의 언어발달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발달과정은 유사하고, 지연되는 언어 발달도 4세정도가 되면 단일 언어 아동의 수준과 유사해진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귀옥 등, 2003; 이귀옥·이혜련, 2004; 이귀옥·이혜련, 2005; De Hower, 1995; Hoff, 1997)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들의 복문구조발달과정을 살펴본 결과, 2세에서는 복문구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3세와 4세간에도 그 사용정도나 사용유형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 언어 아동들인 한국아동들이 2세경에 복문발달이 시작된다(김영태, 2002)는 사실에 미루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중 언어 아동들의 복문구조 발달이 단일 언어 아동들에 비해 다소 늦어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 언어를 학습하는 초기단계에는 언어발달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이귀옥 등, 2003; 이귀옥 · 이혜련, 2004; 이귀옥 · 이혜련, 2005; 황혜신 · 황혜정, 2000)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문 구조의 각 유형별로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이중 언어 아동들의 경우 나열 구조는 4세 아동들의 경우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나열 구조를 빈번하게 사용한 한국 아동들의 결과(김영태, 2002)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언어 아동들의 발화를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나열구조를 사용하기보다는 각각을 완전한 한 문장으로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나는 사과, 배 먹었다’와 같이 체언나열의 경우 이중 언어 아동들은 ‘나는 사과 먹었다, 나는 배 먹었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먼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는 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중국어의 특성이 한국어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어도 조사를 적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중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문법 기능 습득에 관한 연구(이귀옥 · 김형재 · 이혜련, 2006)에서 이중 언어 아동들은 한국어 조사발달이 한국 아동들보다 다소 지연될 뿐만 아니라 흔히 사용되는 주격조사 ‘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중국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와 더불어 주변사람들, 특히 양육자의 사용빈도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발화에서도 나열구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의 언어사용환경이 아동에게 영향을 끼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들 스스로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짧은 문장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즉, 외국어를 학습할 때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말하기나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이중 언어 아동들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전략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중 언어 아동들의 발화를 분석해 볼 결과 문장을 길게 사용하기보다는 간단하고 짧은 문장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 언어 아동들의 복문 발달과정에서 연결 구조는 3세 아동과 4세 아동 모두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세 아동들은 시간 연결과 조건 연결을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4세 아동들은 연결구조 중에서도 특히 조건 연결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포구조의 발달과정을 살펴본 결과 연결구조보다는 사용빈도가 낮았지만 3세보다 4세 아동들이 내포구조의 사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좀더 복잡하고 어려운 복문 구조를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중 언어 아동들인 중국 조선족 아동들과 단일 언어 아동들인 한국아동들의 복문 구조발달(김영태, 2002)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복문 구조 중 연결 구조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중 언어 아동들과 단일 언어 아동들 모두 연결 구조 중에서도 시간 연결과 조건연결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내포 구조에서는 체언수식내포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과정이 단일 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과정과 유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의 경우 초기 언어발달속도는 다소 지연되지만 언어발달과정은 동일하다는 연구들(이귀옥 등, 2003; 이귀옥 · 이혜련, 2004; 이귀옥 · 이혜련, 2005)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이중 언어 아동들의 MLU 발달이나 복문발달과정이 단일 언어 아동들보다 다소 늦어져 이중 언어를 습득하는 초기에는 이중 언어 아동들이 단일 언어 아동들보다 언어발달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그 발달과정은 단일 언어 아동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아동 수가 적고, 지역적인 특성이나 가정환경, 부모 특성 등은 고려되지 않았고,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수평적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들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한국에서 이중언어를 학습하는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한국에서 유아기 초기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발달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태(1998). 한국 2-3세 아동 문장의 의미론적 분석 : 의미단위수, 의미유형, 의미관계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3, 20-34.
- 김영태(2002). **이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 학지사.
- 남기심 · 고영근(1996).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 탑출판사.
- 이귀옥 · 김형재 · 이혜련(2006).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한국어 문법 기능 습득. **아동학회지**, 27(4), 1-14.
- 이귀옥 · 이혜련(2004). 중국 조선족 아동의 초기 다국어 발화의 의미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4), 75-89.
- 이귀옥 · 이혜련(2005). 아동의 이중 언어 경험과 상위 인지능력의 관계 : 기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8(2), 105-119.
- 이귀옥 · 이혜련(2005).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의 초기 의미관계 발달과정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이중언어학**, 28, 249-266.
- 이귀옥 · 전효정 · 박혜원(2003). 3-5세 아동의 이중 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계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6), 1-14.
- 이승복(1994). **언어획득과 발달**. 서울 : 정민사.
- 이영자(1997). **유아언어교육**. 서울 : 양서원.
- 이혜련 · 이귀옥(2006). 이중 언어 경험과 선택적 주의 능력의 관계. **아동학회지**, 27(4), 55-64.
- 장유경 · 임현정 · 광금주(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3(2), 105-120.
- 조명환(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 책략 모형**. 서울 : 서울대학교.
- 황혜신 · 황혜정(2000). 이중 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Bialystok, E., & Codd, J. (1997). Cardinal limits : Evidence from language awareness and bilingualism for developing concepts of number. **Cognitive Development**, 12, 85-106.
- Bialystok, E. (1999). Cognitive complexity and attentional control in the bilingual mind. **Child Development**, 70(3), 636-644.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alambos, S. J., & Golding-Meadow, S. (1990). The effects of learning two language on level of metalinguistic awareness. **Cognition**, 34, 1-56.

- Gathercole, V. C. M. (in press). Monolingual and bilingual acquisition : Learning different treatments of that-trace phenomena in English and Spanish. In D. K. Oller(Ed.),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Clevedon, UK : Multilingual Matters.
- Hoff, E. (2001). *Language Development*, Belmont,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 Klee, T., & Fitzgerald, M. D. (1985). The relation between grammatical development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 *Journal of Child Language*, 12, 251-270.
- Miller, J. F., & Chapman, R. S. (1981). The relation between age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4, 154-161.
- Retherford, I. (1987). *Guide to analysis of language transcripts*. Wisconsin : Thinking Publications.
- Rondal, J. A., Ghiotto, M., Bredart, S., & bachelet, J. F. (1987). Age-relation, reliability and grammatical validity of measures of utterance length. *Journal of Child Language*, 14, 433-446.

2008년 4월 29일 투고, 2008년 6월 25일 수정
2008년 9월 5일 채택